

따뜻한 연말, 공연 소식을 전합니다

연말을 맞아 광주·전남 지역 곳곳에서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국악공연, 뮤지컬, 연극 등이 관객들과 만나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선공연까지 열려 눈길을 끈다.

먼저 국악과 재즈가 어우러지는 무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국립남도국악원(원장 정상열)은 6일 오후 7시 국립남도국악원 전악당에서 '달무지개' (月虹) 공연을 선보인다.

지난 2월 일본 도쿄에서의 초연을 시작으로 고양 예술인 축제 초청공연 등 3회에 걸쳐 연주를 선보였으며 이번 공연은 올해 마지막 무대다.

무대는 '땅거미', '푸른', '진홍', '황금', '달 무지개', '백자의 사람', 'Ethnoism', 'Another East', 'The Endless' 등으로 꾸며진다. 민영지(국악인), 하구애이 김(재즈피아노), 김준희(해금), 박미은(피리)이 등장한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해 공연장 지정좌석제를 운영한다. 공연 시작 한 시간 전부터 전악당 1층 로비에서 좌석 번호가 적힌 티켓을 발급한다. 공연 당일 오후 6시 20분 진도읍사무소, 6시 35분 십일시 사거리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무료관람.

박물관 송년 문화공연도 마련된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김승희)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송년 문화공연을 7일, 21일, 22일 모두 3일에 걸쳐 연다.

먼저 7일(오전 11시·오후 3시)은 어린이 뮤지컬 '호두까기 인형'이 펼쳐진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구성으로 다채로운 무대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21일(오후 2시·6시)에는 코믹추리극 '행오버' 공연이 이어진다. 대학교로 연극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행오버'는 저마다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간직한 등장인물들의 사연과 아내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다룬 코미디 스릴러이다.

마지막으로 22일(오전 11시·오후 3시·오후 5시)은 어린이 매직쇼 '해리와 마법기사단'이 진행된다. 마술과 뮤지컬이 합쳐진 공연으로 어둠의 마법사로부터 주인공과 친구들이 마법학교를 지켜내는 내용이다.

모든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에서 선착순 사전예약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달무지개' '호두까기 인형' '행오버' 등 다채
우리가꼭부르기 회원 40명 송년 자선음악회
광주국제교류센터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도

광주·전남 우리가꼭부르기 제128회 공연은 연말을 맞아 자선 음악회로 진행한다. 13일 오후 7시 광주예총 방울소리공연장 지하 1층.

송년자선음악회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남구 봉선동 노름담형제의 집을 후원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박호진씨의 노래지도 아래 황인화, 김수현씨가 피아노 반주를 맡고 27개 팀 중 창단 포함한 40명의 회원들이 무대를 꾸민다.

먼저 모든 참가자가 부르는 '다 함께 부르는 노래'로 '내 맘의 강물', '청산 살리라', '그리운 금강산'을 부른다. 이밖에 '그리워 그리워', '그리움도 행복이여라', '바람 그리고 사랑', '인생', '산노을', '아름다운 동행' 등도 무대에 올린다.

소프라노 박송미, 서예숙, 유덕희, 테너 정갑주, 김종석, 박상휘, 꿈오라기 앙상블 등이 출연한다.

이달의 초청 음악가는 테너 정평수다. 정 씨는 전남대학교 음악학과, 이탈리아 푸치니 국립음악원을 졸업했다. 이날 공연에서는 김소월의 시에 김종현이 곡을 붙인 '눈 오는 저녁'과 경기민요 '박연폭포' 등을 선보인다. 전석초대.

광주국제교류센터(이사장 데이빗 쉐퍼)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7일 오후 3시30분부터 6시까지 광주국제교류센터 강당에서 20주년 기념행사 '어느덧 스무 살' 및 '2019년 송년회'를 갖는다.

광주국제교류센터는 1999년 6월 국내 최초로 설립된 국제교류센터다. 광주·전남 지역민과 외국인들이 어울려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을 제공하며 광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센터와 함께 걸어 온 후원회원과 자원활동가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광주아트클래스의 커뮤니티 아트쇼, 천원으로 산타에게 소원 빌기 등을 비롯해 축하공연, 글로벌커뮤니티 홍보 및 기금마련 물품판매, 네트워킹파티 등이 진행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전은재 기자 ej6621@



1 국립남도국악원 '달 무지개'
2 어린이 뮤지컬 '호두까기 인형'
3 코믹추리극 '행오버'



이영민 작 '물'

www.현대미술가회 초대전

15일까지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여성 현대 미술작가들이 자기만의 색채로 제작한 대작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됐다.

www.현대미술가회 17번째 전시회가 오는 15일까지 광주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열린다.

박물관 초대전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의 주제는 '2019-15'다. 다양한 작품 활동을 펼쳤던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회원 15명이 15개의 이야기를 자신만의 조형 언어로 풀어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www.현대미술가회모임의 시작은 지난 2003년이다. 당시 지역 갤러리 초청으로 그룹전을 가졌던 여성 작가들 중 일부가 학연 등을 떠나 작가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다작'을 전시하는 그룹을 결성, 무등갤러리에서 첫 전시회를 연 게 출발이다. 모임이름 'www.현대미술가회'는 'world wide woman'을 뜻한다. 이후 모임은 '포옹', '관개', '나의 안락한 소파-경계', '개성-14가지 색깔전' 등 다양한 주제로 그룹전을 열어왔다.

이번 전시에는 김왕주·류현자·박수옥·백애경·이선희·박경희·이영민·임수영·정순아·정정임·정창·조수경·채경남 작가가 참여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 부엌의 변화'

앎문화원-광주대 공동, 6일 오픈특강



나주 남파고택의 부엌

아시아문화원(원장 이기표)과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콘텐츠원캠퍼스 오픈특강이 6일 오후 3시 ACC문화정보원 극장 3에서 열린다.

이날 특강에서는 일본 문화인류학계의 석학인 아사쿠라 도시오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동아시아 음식문화 전반에 대해 이야기한다. 자신을 포함해 일본인 연구자들이 분석한 한국 부엌과 아울러 건축·인류학·음식문화 연구자 등 다양한 시점에서 바라본 한국 부엌의 변화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동안 오픈특강은 8월부터 6차례 냉장고, 부엌, 식재료, 베트남 음식, 채식, 적정기술 등 음식문화와 부엌 공간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다뤘다. 콘텐츠원캠퍼스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아시아문화원과 광주대학교는 오픈특강을 계기로 VR 실감미디어 아시아 음식문화 기록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며, 2020년 2월 ACC에서 쇼케이스로 공개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설총식 작 '6자 회담'



'인물' 통해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광주문예회관, 31일까지 '시대의 얼굴' 전

올해 다양한 기획전을 열었던 광주문예회관이 마지막 전시를 준비했다.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인물'을 주제로 한 새로운 해석을 살펴보는 '시대의 얼굴' 전으로 꾸며진다.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한 시대를 이야기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인물을 통해 바라보는 시선은 '개인'을 탐구하는 존재론적 의미와 함께 시대정신과 사회적 이슈까지도 풀어내는 역할을 한다.

전시에는 김성결·박수만·백상욱·서완호·설총식·하승환 등 여섯명의 작가를 초대했다. 각기 다른 시점과 주제의식으로 우리 시대의 얼굴에 주목해 온 작가들로 개인의 욕망, 인간 내면의 감정 등을 회화·조각 작품 39점으로 풀어냈다.

화려한 색채를 바탕으로 왜곡되고 때론 기괴한 인물의 모습을 포착하는 김성결 작가는 소통을 스스로 단절한 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우화적 표현이 돋보이는 박수만 작

가는 작품 속 변형된 인간의 얼굴을 통해 도시화, 산업화로 파편화되고 구조화된 인간의 욕망을 풍자와 위트로 묘사한다.

과거의 향수와 추억을 담은 고무신을 소재로 작업하는 백상욱은 다양한 사람들의 익살스럽고 생동감 넘치는 표정을 고무신 속에 조각으로 표현하며 권력에 의해 지배당하는 사회의 구조에 주목하는 서완호의 도시풍경은 고요하고 적막함이 흐르고 그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표정에선 쓸쓸함과 상실감이 묻어난다.

그밖에 동물을 의인화한 시리즈를 선보이는 설총식은 각 나라마다 이태하산을 따지는 정치적 현실을 동물상에 빗대어 풍자한 작품 '6자회담' 등을 전시하며 하승환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의 삶의 의미와 그 속에 담긴 일상 속 이야기를 풀어낸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대학 문화의 느티나무'

전남대 박물관 특별기획전, 내년 4월까지

전남대박물관(관장 조진선)이 개교 이래 지금까지의 대학 문화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특별기획전시회를 열고 있다. <사진>

지난 2일부터 2020년 4월 10일까지 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기획전의 주제는 '대학 문화의 느티나무, 전남대학교'. 박물관은 67년 대학 역사 속에 면면히 내려온 대학 문화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게 전시를 구성했다.

주요 콘텐츠는 학생회와 동아리 활동, 학술·문예·체육·봉사·종교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또한 학생들의 목소리가 군부독재 아래에서 교내 자치·민주의 메아리가 되고, 현대 민주주의의 파동을 이끌어낸 현대사로 전이되는 장면들을 볼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2019년
12월 송년모임

신양파크호텔 감사이벤트

2020년
1월 신년모임

12월 송년 및 1월 신년모임 감사이벤트
(연회행사시 적용)

- 각 연회장 메뉴 10% 할인
- 음료 · 주류 50% 할인
- 객실 이용권 증정
- 현수막 1ea 무료 제공
- 빔프로젝트 무료 제공

※ 50명 이상
행사시 적용

신양파크호텔 화이트니스 클럽 회원모집

연회비		(월 2회 휴무/매월 2, 4주 수요일)	
구분	월	6개월	1년
개인	₩ 300,000	₩ 1,200,000 (월 ₩200,000)	₩ 2,000,000 (월 ₩166,670)

특 전

- 사우나, 체력단련장, 수영장 무료이용
- 레스토랑 이용시 10% 할인
- 요가, 에어로빅, 수영 단체레슨 무료
- 객실 이용시 50% 할인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문의 및 예약 ☎ **062)221-4101~3, 228-8000**